

# 지붕에 난 구멍



친구를 낮게 하기 위해 지붕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여러 마을로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르침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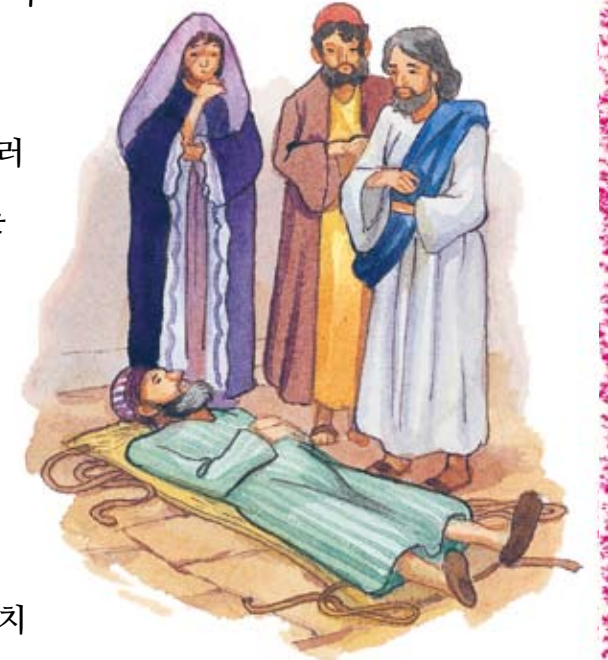
혼자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 기억 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잠언 18:24)

## 중심생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면 어떨까?” 한 친구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친구들은 네 귀통이에 밧줄을 맨 들것에 중풍병자를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벽돌을 한 장씩 걷어내고 지붕 구멍을 뚫어 환자를 아래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 받았다. 일어나 네가 누웠던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곧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구름 같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고서적**  
누가복음 5:17-26,  
시대의 소망 267-271

 기억절 외우기

기억절을 세 번 읽고 따라 써보세요.



#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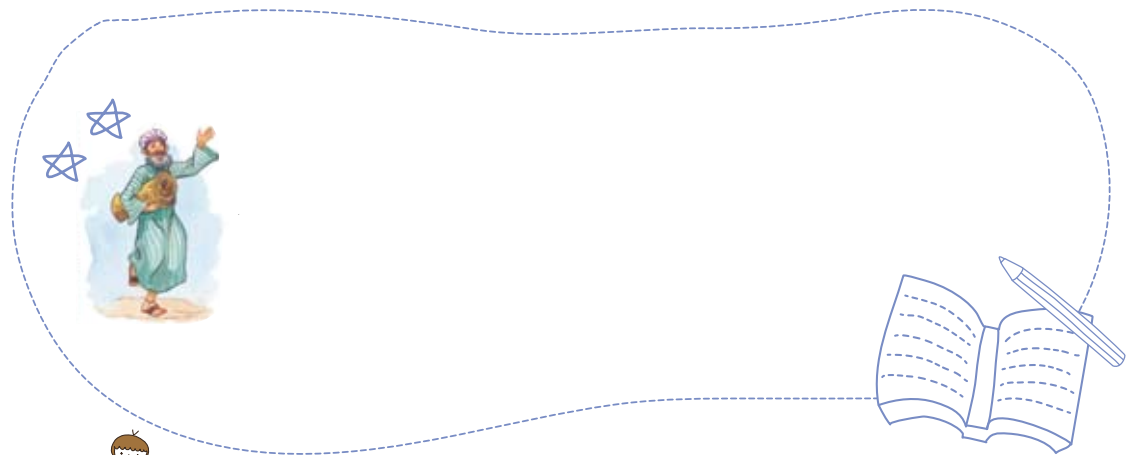
 **잠언 18자 24절**

 나누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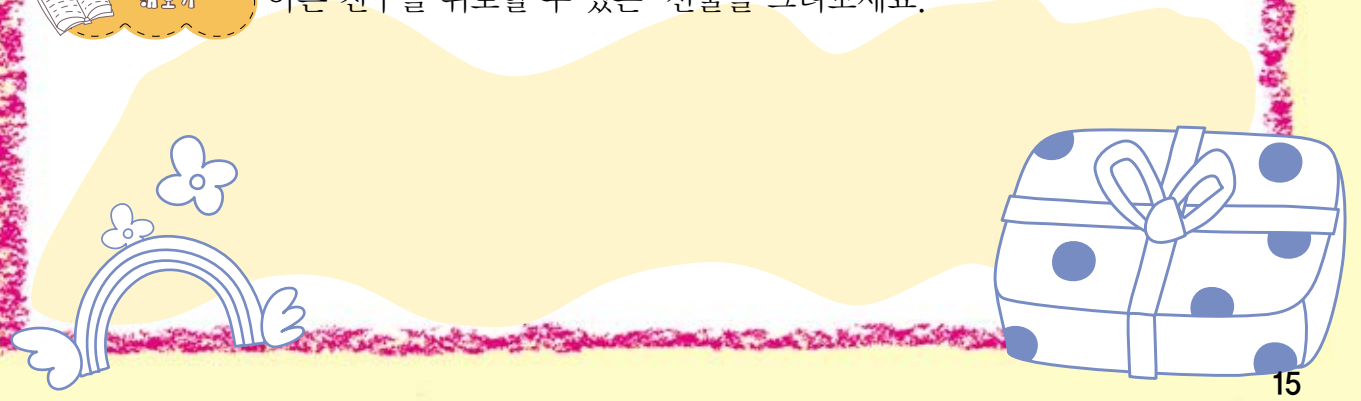
 해보기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다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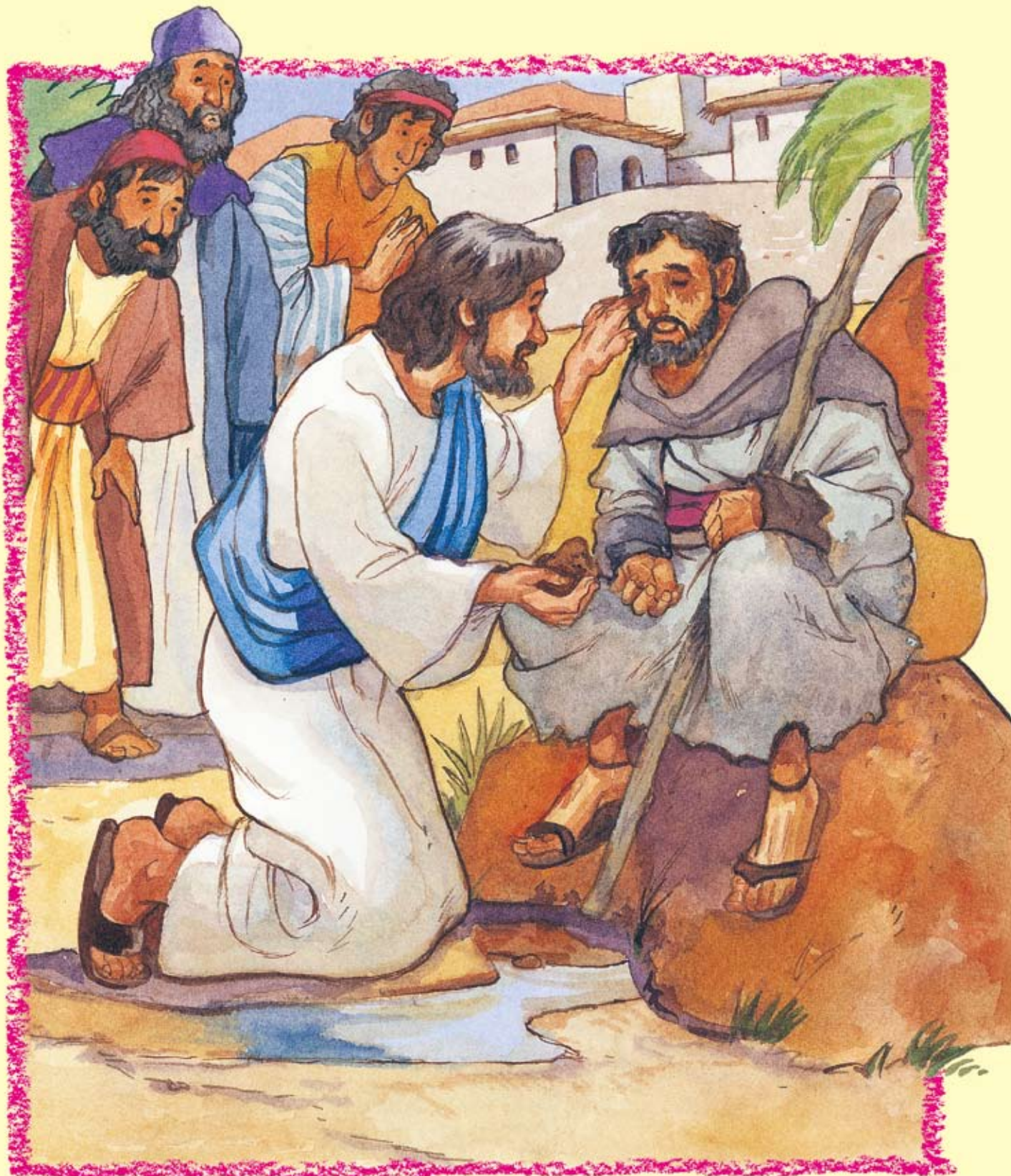


 해보기

아픈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선물을 그려보세요.







# 이제는 보여요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말하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청년을 보셨습니다. 청년은 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다가가서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 침으로 진흙을 조금 이겨서 청년의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짚**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25)

**중심생각**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청년이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보인다, 보여!” 눈에서 진흙을 씻자마자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웃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 맞나요?”, “아니야,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서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